

예술단·참관단까지...평창에 사상최대 규모 北방문단 오나

남북 고위급회담 결산

북한이 9일 열린 고위급회담 전체회의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대표단 파견 의향을 표명함에 따라 사상 최대규모의 방문단이 남쪽을 찾을지 주목된다.

북측은 이날 회담 기조발언에서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은 물론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할 의향을 보이면서 우리측의 입장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남북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낸 적은 있지만, 예술단이나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등을 보낸 적은 없다는 점에서 북측의 이런 입장이 남북 조율을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북측 방문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2002년 부산에서 열린 하계아시안게임에 북한은 선수단 362명, 응원단 288명 등 총 650명을 보냈다. 1년 뒤인 2003년 열린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에는 선수단 221명, 응원단 306명 등 527명을 파견했다.

2014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는 선수단 273명을 보냈고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자 황병서 당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부위원장, 지금은 고인이 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으로 구성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단일 종목의 국제대회였던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는 북한이 선수단 20명과 응원단 124명 등 총 144명을 파견했다. 특히 이 대회 응원단에는 지금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가 된 리설주가 포함되기도 했다.

일단 이번 평창 올림픽은 동계스포츠 종목 선수들이 참가해 겨루는 동계올림픽이어서 선수단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北 태권도 시범단 등 파견 의향

남북조율 따라 650명 넘을수도

선수단 규모는 크지 않을 듯

장우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8일(현지시간) IOC와 협의차 스위스에 도착한 뒤 평창에 보낼 선수단 규모를 묻는 말에 "IOC에 물어보라. IOC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참가 신청 기한이 지나 무효가 된 피겨스케이팅 페어 외에 추가로 선수들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또 동계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실내에서 치러지는 아이스하키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등을 제외하고는 응원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응원단도 큰 규모로 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관심을 끄는 것은 예술단과 참관단 등이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판 걸그룹'이라는 평판을 쌓고 있는 모란봉악단의 방남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 악단과 최근 지방순회공연을 함께했던 왕재산악단, 공훈국가합창단이 함께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숫자만도 100명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도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참관단'도 관심이다. 회담대표로 고위급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전해성 통일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런 표현을 썼고 남북 간 용어의 차이나 이해가 다를 수 있어서 오후에 대표 접촉 과정에서 확인을 할 것"이라며 "어떤 범위라든지 어떤 분들 참여를 생각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위급 대표단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내



9일 남북 고위급회담이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이 판문점 MDL(군사분계선)을 건너 남측으로 오고 있다. /연합뉴스

려오는 참관단은 그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작년 6월 무주를 찾았던 국제태권도연맹(ITF)의 시범단은 총 36명이었다. /연합뉴스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한 조심스런 돌파구”

NYT·BBC 등 외신 남북회담 일제히 보도

외신들은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시선을 집중했다.

미국 CNN 방송을 비롯한 대다수 주요 외신은 현장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이번 회담이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는 모습이다. 이들 매체는 북한이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과 응원단 등을 파견해달라는 우리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의 결정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난 몇 달간 위기가 고조된 이후에 나온 상징적인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NYT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가 남북한 스포츠 교류에서 역사적인 진전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화에서 한국의 관리들은 북한이 긴장 완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에 관심이 있는지를 탐색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위주로 회담 내용을 전하면서 “이 합의는 지난 몇 달 동안 평양의 핵무기 프로그램으로 긴장이 고조된 이후에 나온 조심스러운 외교적 돌파구”라고 밝혔다.

CNN은 “남북한 관리들 사이의 첫 대면 회담에서 나온 첫 번째 주목할 만한 돌파구”라고 했고, 영국 BBC 방송은 “긴장의 몇 달 후에 나온 갑작스럽고 극적인 변화”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회담을 한반도 긴장완화의 신호를 열렬히 찾고 있는 세계 정상들이 유심히 지켜봤다고 전했고, AP 통신은 이번 대화의 관점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남측과의 관계 개선 추구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움직임에 당장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았다. AP는 “비평가들은 김정은이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를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서울과 워싱턴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 통신 등 다수의 외신도 비슷한 취지의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BBC는 한국에서도 이번 결정이 북한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라고 믿는 사람은 적다고 보도했다.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미국의 전직 외교관 에번스 리버는 CNN에 “우리는 예전에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결국은 실망하고 말았다”며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南 “설에 이산가족 상봉하자”...2년 4개월만에 만남 성사될까

조명균 장관 군사당국회담과 함께 제안...北은 구체적 답변 안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전체회의 기조발언에서 “2월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제의했다. 지난해 7월 북측에 군사당국회담과 함께 적십자회담을 제안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 데 이어 고위급회담에서 또다시 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적 환경을 보장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간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했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면

2015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설은 2월 16일이라 같은날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포함돼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이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까지 합의되면 평창뿐만 아니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도 남북 간 대형 이벤트가 벌어지게 된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의 외신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 탈북한 여성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이산가족 상봉에 조건으로 걸어둔 상태이기는 하다. 하지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북측이 여중업원 송환 조건에 꼭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래도 이산가족 상봉 합의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않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에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조건을 건 사례가 적지 않았다. 또 설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다.

그러나 통일부는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휴에 날짜를 맞추는 필요는 없고 과거에도 명절을 계기 삼아 다소 여유를 두고 상봉일을 잡는 적도 있다는 입장이다. 상봉 대상자 선정 등 준비 과정도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필요하다면 단축도 어렵지 않다.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최우선적 과제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인 조 장관 역시 자신이 실형인 2세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산가족 신청자는 13만 명이 넘지만 2015년 10월까지 20차례 열린 상봉행사에서는 4천185건의 상봉만 성사됐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신청자들의 고령화가 심각해져 시급히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농협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